우리를 빼놓고 부처 보살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 25면에서 계속

고 자유인에 가깝고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부처가 없는 것이 부처기 때문에 항상 보살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한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요, 활용을 했다 하면 화신입니다. 이것이 다 보살의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빼놓고 부처님, 보살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러한 연구를 하신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화합을 이루면서 허망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를 녹이는 방법이 놓는 방법이다, 맡겨 놓는 방법이다. 나를 발견하는 방법도 놓는 방법이다. 그러니 "첫째, 놓고 나를 발견하라! 나부터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두 상대를 모른다. 상대를 모른다면 바로 한 치도 움죽거릴 수 없다. 무의 법에서 모두 유의 법으로 나오고 유의 법에서 무의 법으로 드니 이것은 한생각 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되풀이하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되풀이하는 말 자체를 새겨 봐서 그 말 자체가 없어지도록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좋게 해서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한다면 잘못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스스로서 절감하고 감응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서 스스로 한생각을 낼 때에 그것이 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차츰차츰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또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는 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업보를 지니고 나왔으면 팔자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 모르면 그렇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 더 업보를 지을 뿐, 그것을 무마시킬 수는 없고 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오는 대로 바깥에서 오는 경계도,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도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는다면 모든 업보가 무너지는 거죠.

지옥고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지옥고가 무너지게 되자, 고르고 골라서 씨를 뿌린 밭에다 물을 주면 싹이 모락모락 나오듯, 내 마음의 근본이 바로 모락모락 나오게 되죠. 그럼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한 발을 떼어 놓을 때에 무겁게 떼어 놓게 되고, 말 한마디 할 때 한번 굴려서 무겁고 지혜 있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많죠. "저 스님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똑 떨어지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얼버무려 놓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딴 사람들이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한 번만 말을 해놓고 한 번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고도 아니 하고 '나쁘다' 고도 아니 하고, 강도도 강도가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강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마음으로 '저건 강도다' 그러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선자고 이건 악자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몸을 벗어도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요다음에 또 그렇게 곡경을 당할 테니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말 한마디 해서 법으로 딱 떨어질 땐 그게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했다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일지언정 때로는 나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장차 좋은 것도 아니고, 장차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어떠한 지경에 도달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돌아설 사람을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꼭 찍어 놔야 옳겠습니까?

이건 그럴 수가 없죠.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길잡이로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참 뜻, 이 좋은 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정말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손이 손이 아닙니다, 손 아닌 손이 손이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는 그 사실! 하늘을 뚫을 수가 있다는 사실! 백지장 하나를, 산을 넘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산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니, 여러분이 그것을 다 놓고 그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인으로서 남북통일도 가져올 것이고, 세계를 융화시켜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몇 년 전에 내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모든 것을 면하려면…, 그러면 나쁜 건 왜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지. 그것은 우리의 손가락이 길고 짧듯이 이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도, 쓸모없는 따라지가 붙었어도 이거는 붙어야만이 손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한쪽에선 승리가 되고 승리가 되면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또 발전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스님이 잘 아신다면 이거를 이럭하지 않도록 일러 주시지, 왜 일러 주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잘못돼서 돈을 뭉청 잃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남한테 속았든지, 남과 동업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자기가 한번 경험하는 반면에 자기는 평생 아니라 영원토록 남한테 속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말해서 만약에 속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또 속는 것도 그렇지만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를 잘못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몇천 불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그것이 몇천 불 짜린데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번 경험에 몇천 불이 아니라 몇만 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론으로 또는 경을 보고 글 강의하듯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이것을 남의 말 하듯이 하면 그게 무슨 실감이 납니까?

석존이 여기 계셨어도 석존을 마시고 들어가야 돼. 부숴서 마시고 들어가야 돼. 그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놓고, 모든 걸 보임을 하고 또 그 보임한 데서 다시금 내놓고, 만법을 내고 들이고,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부처님은 자기 안에, 아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지, 일체가 들어 계신 거죠. 그렇게 딴 데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을 삼켰느니 또 바닷물을 삼켰다가 뱉어 놨느니 또는 한마음에 들었느니 주인공에 들었느니 다 부쉈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순 게 부순 게 아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과 마음이 둘이 한데 붙었으면 이게 둘입니까, 어디? 영과 영이 어떻게 둘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을 한데 종합해서 다 주워 모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방귀 뀌었다 해도 그 방귀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분이 다 방귀를 뀌었다 해도 그 방귀라는 이름만 남지, 그냥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저 차원이 낮다고 이름 지을 수 있죠. 모든 것을 놓고 침착하게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님으로써 우린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심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빙긋이 웃고 한 발 떼어 놔도 온 법계가 다 울린다는 얘기죠.

이 말 자체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다하지 마세요. 열 번을 되풀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열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되풀이하고 계신대도 마다 안 합디다. 한 끼니만 걸러도 그냥 배가 고프다고 딴 때보다 막 퍼넣는 거죠. 반찬이 조금 소홀해도요. 그러나 배가 부를 때는 반찬이 잘 놓였어도 뜨적뜨적 천천히 먹는 시늉 해요.

이렇게 우리는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항상 밥과 김치를 먹어야 살듯이, 항상 했던 소리를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들이고 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서 납득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서 나의 속도 알 것이요, 부처님 속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숙명통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스님! 부모가 불쌍해서 천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가난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깐 일 년 육 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면서 "일 년 육 개월이 걸려도 돈이 모아지질 않아서 이렇게 그냥 왔습니다." 하고 눈물이 나는 걸 참으니까 눈물만 흐르고 침을 자꾸 삼키면서 말을 못 했습니다. 잇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이거 봐. 없으면 없는 대로 천도하지 왜 그렇게 걱정근심을 해? 그게 고야, 바로. 당신이 모른다면 내가 천도시켜 줄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천도시켜 준다고 말 한마디 해서 믿어 줄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한 줄 알고 가!" 그랬어.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침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삼십이응신으로서의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다 오고 감이 없이 응해 드릴 겁니다. 또 본래 여러분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능력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는다면 그 지옥고도 무너뜨릴 수 없거니와 그 업보로 인해서 천만 가지 다가오는 것에 끄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그건 천도시켜 줬죠?" 이러실 테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고 절실하게 왔기 때문에 그건 단번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번에 놓는다면 지옥고가 단번에 무너진다는 거.

항상 이렇게 하고 나가는 데에서 여러분이 느낄 때에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지는 않어." 이 소리는 무식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여기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집안이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어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재산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업보를 하나하나 놓기 때문입니다. 그 업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옥고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너져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살림살이가 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나아지는 거죠. 스스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지옥고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업보를 없앨 수 없고…. 여러분, 항상 얘기 들어서 아시겠죠? 용광로에다 놓으면 다시 생산돼서 쇠가 나오고 그 쇠가 생산돼서 나오면 다시 이름을 받고 다른 물건이 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몸 하나에서 하나하나 분기가 치밀어도 별거 별거 다 놓는다면 바로 그게 용광로에다 넣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돼서 나오듯이 그 하나하나 업보로 뭉쳐진 중생이 보살로 화해서 여러분을 돕게 되고 조상, 친척, 자식들도 다 돕게 됩니다.

이 좋은 법을 만약에 모르고 기복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아니 놀러 다니는 것처럼 어떠한 대상을 놓고 빌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한 번 생각해서 놓는 데 지옥고가 찰나찰나 무너지니
> 그 수없는 지옥고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 그 지옥고가 무너짐으로써
> 나의 밝은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0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